

2022 열린인생 1.

힘을 움켜 잡으려 하는 사람, 힘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의 차이 (자아를 다룸 2)

[사도행전 1:8] 8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 힘에 대한 정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을 보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입니다. 권세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번 승부 기도회 동안에 계속 들었던 '자녀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무기력한 자녀, 이름만 있는 자녀가 아니라 '능력, 힘' 이 있는 자녀입니다.

권세 있는 자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은 그 사람의 '권위'를 지켜주며 보호해 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을 통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불치병에 있던 사람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묶여 우울한 열등감 있는 자아가 자존감을 얻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힘을 가지려 합니다. 힘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넘어 무언가를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어야 어떤 목표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대표선수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대표선수에게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준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을 합니다. 그들의 훈련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시합에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목표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장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직분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도전 받고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팀이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뚫어내고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권세는 있는데 권세를 증명할 '권능'은 있습니까? 힘이 중요한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힘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힘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서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에 대한 영적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다. 권세와 권능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권능이 없는 이유는 육의 힘과 영의 힘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2. 행 8장에 나타난 하늘의 능력에 대한 이해

[사도행전 8:4]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권세와 권능에 대한 영적원리를 알 수 있는 귀한 사건이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후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6-8]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중에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힘은 능력과 영향력입니다. 권세와 권능이 함께 풀리게 될 때 복음은 그 현장에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7, 8절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시의 공기가 변한 것입니다. 우울했던, 절망으로 가득하던, 실재와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도시의 공기가 기쁨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권능은 권세를 실재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하던 자에게 묶여 있던 자에게 하늘의 능력은 기쁨으로 실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성도들과 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권능으로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가로막는 육의 생각과 혼의 생각을 옛 자아의 생각을 파쇄해야 합니다.

'마술사 시몬 - 힘에 대한 육의 생각'

[사도행전 8:9-10]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하는 '마술'에 오랫동안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행했던 권능을 보고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더 큰 능력이 작은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더 큰 능력을 가진 자 앞에 정렬됩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있었던 영향력은 진짜 영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몬의 세계관'

시몬에게 있어 '힘'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세상의 영향력들이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힘을 가지려 할까요? 힘의 영향력과 능력을 아는 자들입니다. 맛본 자들입니다. 한 번 맛본 세상의 영향력은 마약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세상 욕망의 DNA들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때 부터는 힘과 영향력을 더 소유하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영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욕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영향력을 맛보면 영의 것들이 싫어집니다. 하찮게 여겨 집니다. 우선 순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맛보면 왜 예배가 차선으로 물러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배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전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 성정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예서와 같습니다.

이런 욕의 생각이 시몬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큰 힘을 소유하고자 그 곳에 성령세례를 주고자 파견되었던 베드로에게 돈으로 성령을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사도행전 8:17-19] 17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의 책망'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지만 여전히 욕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정확히 책망합니다.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책망합니다.

시몬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는 성령의 권능을 원했습니다. 진짜 큰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욕의 것이었습니다. 21절에 '~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시몬의 바램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이번 승부 기도회 내내 들었던 시몬의 마음의 태도 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령의 권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능을 받을 수 없는 시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3 절에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의도,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성경은,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하는 자아를 그냥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자아가 결국 우리를 성령의 권능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결국 화석화 된 종교가 되고 마는 것 입니다.

3.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1)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영의 속성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 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자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의 속성을 모르고 무지합니다.

성령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물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존재는 느껴지는데 잡을 수는 없습니다. 시몬처럼 자기 능력으로 소유할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내 힘을 빼야 한 다는 것입니다. 욕의 힘이 빠져야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의 원리' 욕의 속성과 영의 속성은 정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움켜쥐려 하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영향력과 힘을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 영향력은 나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일 수록 이 현상은 명확합니다. 내 힘을 빼야, 내 생각을 부인해야 성령충만 할 수 있습니다.

'잠겨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 노력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께 잠겨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물에 잠긴 컵이 물로 가득한 것처럼 잠겨야 합니다. 예배에 잠겨야 합니다. 말씀에 잠겨야 합니다. 기도에 잠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에 잠기라' -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하라.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잠겨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잠겨 기도가 나를 끌고 가는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는 물리적 모든 제한을 넘어 버립니다. 주변의 소음, 내 마음 상태 등을 넘어선 기도입니다. 승부 집회 후에 이제 우리는 진짜 권능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충만한 능력의 삶. 아멘.